

광주 유혈진압 주범들 법정 세워 지역민 恨 풀어줘

YS와 5·18

“우리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있는 민주정부입니다.”(김영삼 대통령 5·18 특별담화)

22일 새벽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5·18 특별법 제정,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처벌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한편 5·18 명예회복에 앞장 선 최초의 대통령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전 대통령과 영원한 라이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호남사람들도 “YS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해 서한만큼 많은 일을 했다”고 입을 모았다.

김 전 대통령은 재임 첫 해인 1993년 5월 5·18 광주민주화운동 특별담화’를 통해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했다. 항쟁 13년이 만에 ‘광주폭동’은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제자리를 찾았다.

훗날 김 전 대통령은 광주를 방문해 광주일보와 단독 인터뷰(2007년 5월 22일)에서 “많은 반대에 부딪혀 고통받고 힘들었다. 그러나 이 문제(5·18)를 해결하는데 나만큼 책임자가 없다는 생각으로 임했다”고 털어놓았다. 호남 출신이 아닌 경남 출신의 대통령이었던 탓에 5·18 책임자 처벌, 민주화운동 규정 등을 사심없이 추진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립 5·18 민주묘지 조성, 5·18 국가기념일 지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은 김 전 대통령이 호남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계기가 됐다.

5·18 특별법을 통해 5·18의 정점에 서 있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범정에 세우는 등 처벌의 계기를 마련하고 5·18 정신을 기리는 기념사업 추진도 법제화 됐다.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진압을 공로로 진압군이 받은 상훈을 박탈하게 한 것도 5·18 특별법 때문이었다.

이런 공로로 김 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5월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등 5월 단체의 초청으로 광주를 방문해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김 전 대통령은 당시 국립 5·18 민주묘지를 둘러보면서 “목이 맨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목이 메어서 얘기하기가 힘들다”는 표현으로 80년 5월 광주시민들에게 부채 의식을 드러냈다. 한편으로 “5월 단체에 감사패를 받아 나의 진심이 이제야 제대로 전해졌다는 생각에 참으로 기쁘고 큰 감회를 느낀다”고 광주를 찾은 자리에서 밝히기도 했다.

1980년대 군사 독재의 서늘 퍼린 시절에도 야당 지도자로서 김 전 대통령은 5·18과 연계해 민주화 투쟁을 이어가면서

취임 첫 해 민주화운동 규정

특별법 제정·기념일 지정

전두환·노태우 처벌

조선대 민주화에도 기여

민주세력을 규합해 나갔다. 1983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3주년을 맞아 김 전 대통령이 결행했던 23일간의 단식투쟁은 당시 잠들어있던 민주세력을 흔들어 깨우면서 민주화 투쟁의 큰 전기로 작용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동지이자 영원한 맞수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각각 영남권과 호남권을 대표하는 민주화의 리더로 이 땅의 민주화를 이끌어온 거물이었다.

하지만, 김 전 대통령은 지난 1988년 13대 총선에서 통일민주당이 3당으로 전락하자 1990년 1월 당시 여당인 민자당과 김종필 총재가 이끌던 신민주공화당과 3당 합당을 감행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후 집권당이던 민자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됐고 1992년 대선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숙명의 대결을 벌여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 뒤 두 사람은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먼저 눈을 감기까지 20여년 간 반목의 세월을 보냈다.

지난 2007년 광주방문 당시 김 전 대통령은 “지역화합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하겠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국립 518 민주묘지도 가고, 부산 민주공원도 함께 갔으면 좋겠다”고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두 전 대통령은 지역구도와 지역감정 타파를 원했던 지역민들 바람과는 달리 마지막까지 제대로 된 화해의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다.

김 전 대통령은 조선대학교 민주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1·8항쟁’으로 상징되는 조선대 학원 민주화 운동의 정치적 해결을 이뤘다는 평가다. 조선대 1·8항쟁 직후인 1988년 1월 12일 노태우 당시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조선대 사태 해결을 공식 의제로 삼아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또 국회 조선대사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박철웅 일가 배제, 관선이사 파견 등을 지원했다.

조선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최경주 씨는 “YS는 조선대 민주화에 관심을 갖고 해결에 앞장 섰다”며 “박철웅 일가 배제, 관선이사 파견, 이문명 총장 영입 등을 야당 총수로서 적극 지원했다”고 회상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지난 2007년 5월 22일 광주시 북구 운동동 국립 5·18 민주묘지 추모탑에서 헌화·분향한 뒤 5월 영령에 대해 묵념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ina@

예산처 반대 불구 광주시민 열망 보고 전폭 지원 지시

YS와 광주비엔날레

오는 2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공식 개관을 앞두고 있다. 예향과 문화수도를 표방하는 광주의 랜드마크가 세워지게 된다. 아시아문화전당이 설립되기까지 그 모태는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시작된 광주비엔날레에서 찾을 수 있다.

제1회 광주비엔날레는 난항 속에서 시작됐다. 지난 1994년 9월 당시 강운태 광주 시장은 정부에 ‘국제비엔날레를 개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이 추진되며 5·18에 대한 한(恨)을 풀고 책임자를 처벌한 이후 상상을 생각했을 때 광주의 미래 먹거리로 ‘문화’를 선택한 것이다. YS 정부는 초기부터 ‘세계화’, ‘분권화’를 지향하던 터였다.

그해 11월 광주시, 광주예총, 광주·서울 미술인들을 주축으로 한 실무위원회가 꾸러지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

“광주에서 희안한 걸 한다” 처음엔 비엔날레 잘 몰라 강운태 시장 요청에 대통령 유보금 20억원까지 지원

같은달 10일 강 시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로 국제 비엔날레를 개최하기로 문화체육부와 합의했다고 밝힌다. 광복 50주년을 맞아 1995년 1회 행사를 개최하고 범정부차원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어 12월 광주비엔날레 설립준비위원회와 조직위원회가 발족됐고 개최기간(1995년 9월20일~11월20일)과 예산(100억원), 장소(중외공원) 등 세부안이 확정되며 추진에 속도가 붙는다.

하지만 지원을 약속했던 문체부는 ‘국제 비엔날레를 하려면 서울로 해야된다’는 당시 이민섭 장관의 의견에 따라 입장을 바꾼다. 예산 등의 지원에 소극적이었고 기획예산처, 부총리 등도 이에 동참하

며 협조를 거부했다. 이미 개막일자를 확정 지은 상황에서 광주비엔날레는 난관에 봉착했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의 광주 방문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게 된다.

1995년 2월 초도순시차 광주에 온 김영삼 전 대통령은 강운태 시장의 예산 지원 요청에 따라 광주·전남 주민 500명이 참석한 오찬자리에서 “정부에서 예산과 모 든 지원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발언한다. 김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대통령 유보금 20억원도 지원하게 된다.

1회 예산은 106억원이었다. 정부 본예산 20억, 대통령 유보금 20억, 광주시 20억원을 비롯해 금호, 나산실업, 거평그룹 등 기업에서 50억원 정도를 기부했다. 전

시장 신축비용까지 더해 약 180억원 이상이 소요됐는데 정부의 지원없이는 힘든 액수였다.

강운태 전 시장은 “YS는 ‘광주에서 희안한 걸 한다’는 등 비엔날레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며 “광주 시민의 열망을 보고 같은 달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각 부처에 적극 지원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후 1995년 4월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가 설립되고 그해 9월 58개국 작가 600여명이 참가한 역사적 첫 행사를 치르게 된다.

김 전 대통령은 막상 1회 개막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북한 김정일과 김 전 대통령을 철조망 사이에 놓고 희화화한 작품이 전시 예정이었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결국 이 작품은 개막 며칠 전에 다른 작품으로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HNT 하나투어

휴:休

휴식이 필요한 당신께!

제 1회 하나투어 온라인 여행박람회

기간 : 2015.11.16(월) ~ 11.29(일) / 2주간

추천 휴(休)양지 세부 CEBU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 총장점
문의전화 062) 228-1199

리스트 | 세부

클래식 ○APP179

박람회 특가 + 동반아동10만원 할인

세부 5일

총상품가 **759,000원~**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30~
선택경비 있음

☎ 제이파크 아일랜드 리조트

✉ 매일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필리핀항공, 진에어

☎ 세부(3)

하나투어 마일리지 5만 마일 특별 적립

☎ 망고초콜릿 증정, 맥탄스워트 3박이음, 발마사지 체형, 다이빙 강습 포함

골프 | 클락 레이크 우드

클래식 ○APG104/154

최대10만마일적립+드라이빙렌진 무료이용

클락 4일, 5일

총상품가 **290,000원~**

현지지불 미팅센터 차량비 \$60~
선택경비 있음

☎ 마이크호텔

✉ 매일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필리핀항공, 진에어

☎ 세부퍼시픽 항공

☎ 클락(3/4)

클럽하우스 중식 및 전 일정 식사 포함
무제한 그린피

온천 | 포타이도(북해도)

클래식 JSP510

미니그룹 최대 20만원할인+바디용품증정

포타이도 4일

총상품가 **869,000원~**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포함
선택경비 없음

☎ 조산케이호텔/영수정/이비스스타일즈 싯포르

✉ 매일

✈ 진에어

☎ 치토세-삿포로(1)-노보리벳츠-도야-

기타유자외(1)-오타루-조산케이(1)

☎ 온천호텔 2박+시나 특급호텔 1박, 조산케이+기타유자와 온천욕 체험, 대게요리 뷔페 제공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보함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료,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한다.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권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 [여행상품 내용] 일일 투어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가의 선 택에 따라 자유형에 참여가능하여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택경비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일 투어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시장] 여행상품의 변경되는 경우 여행사의 사전 통지를 받습니다. ■ [관광사립자 등록번호] 제269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8층 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 / 호실 2급호텔 이상 2인 1실/고급호텔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청탁/불만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여행 보험] 22억 (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및 선택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를 참조해 주세요.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위험 1 ● 여행 유약 ● 여행 자재 ● 침수 권고 ● 여행 금지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 www.HanaTour.com